



## 우리의 미래를 바꿀 빅 키워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 ▶ 사회혁신에서 솔루션을 찾다
- ▶ 짧지만 가볍지 않은 사회혁신의 역사
- ▶ 사회혁신은 어떻게 다른가?
- ▶ 사회혁신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 ▶ 어디에서 사회혁신을 시작할 것인가?
- ▶ 사회혁신을 향한 전략과 방법
- ▶ 다시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 1. 사회혁신에서 솔루션을 찾다

변화를 향한 드라이버, 사회혁신

- 2015년 지금은 우리사회가 이미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는 경제위기 (economic crisis)를 넘어서 일종의 ‘사회적 위기(social crisis)’라는 표현이 적절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임. 이런 측면에서 우리사회는

- 소극적이고 지엽적인 변화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함.
- 그러나 2008년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되어 온 경제위기 기간 동안 금융 불안과 부동산 거품, 실업과 불평등,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처,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수 없이 반복되고 여러 가지 해법들이 각 국가들에서 채택되고 실행되었지만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한 마디로 20세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축조된 기성해법의 무력함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중임.
  - 일반적으로 기성해법(traditional ways)이 아닌 새로운 해법은 기성 사고틀에서 벗어나면서 시작됨. 20세기의 최고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그의 책 『일반이론』 서문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습관적인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에서 탈출하기**”(a struggle of escape from habitual modes of thought and expression)가 필요함.
  - 케인스는 “**어려움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있다.** 우리 대부분이 길러진 방식 그대로 길러진 사람들에게는 낡은 생각이 정신의 구석구석에까지 뻗치고 있기 때문(The difficulty lies, not in the new ideas, but in escaping from the old ones, which ramify, for those brought up as most of us have been, into every corner of our minds)”이라고 덧붙임.



고, 좀 더 협력적이고 의식적으로 적용하고 확장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생겼고 이를 위해서 사회혁신의 이론과 전략을 다시 구성해야 할 근거가 생기게 된 것임.

- 어쨌든, ‘사회혁신’이라는 담론이 2010년대의 역사적 시계열에서 사회변화의 힘과 의지를 모으는 장(field)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사회혁신’이라는 키워드로 시민들의 잠재성과 개별적 시도들을 모아 사회변화를 매개하는 하나의 힘으로 변화시켜볼 수 있을까. 기존의 선입견, 관성을 깨려는 모든 시도, 이윤 동기가 아니라 사회를 이롭게 하도록 헌신하려는 모든 시도, 시민들 속에 잠재되었지만, 기존 시스템에서 외면되어왔던 모든 잠재성을 열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sup>18)</sup>

## 2. 짧지만 가볍지 않은 사회혁신의 역사

- 사회혁신에 관한 자료를 보면, 사회혁신에 대해서도, 각 사회는 자기가 처한 조건에 따라 사회혁신을 생각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하지만 대체적으로 1990년대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고 2008년 이후 대단히 적극적으로 개념과 적용범위를 확장해가고 있음<sup>19)</sup>.

- 1) 우선, 북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복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으로 사회혁신에 가장 열린 태도를 보임. (그쪽에서 진행된 사

---

18) 사회혁신이 “지금 우리사회에서 진보적 변화를 열망하고 있고, 지역과 동네 곳곳에 흩어져서 묵묵히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 수많은 ‘흩어진 시민들’을 하나로 연결해줄 ‘심리적, 의지적 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 이후의 한국사회 변화를 진진적으로 선도하는 개념이 될 수 있을까?” 김병권(2013), “대안적 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사회혁신”

19) “사회혁신은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조직화와 발전하는 IT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대량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개념과 실제적 측면에서 1990년대에 재등장했다. 새로운 통신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젊은 세대에 의한 활용은, 사회적 윤리적 책임과 함께 기업의 공적 서비스와 시장의 역동성에 대한 극단적인 담론을 촉발시켰다. 또한 협동조합의 확산과 사회혁신 개념의 기원이 되었던 사회경제조직들에서의 네트워크의 확산을 불러일으켰다. 2008년 금융위기는 줄어드는 예산과 증가하는 사회적 필요로 인한 도전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감당 가능한 해법으로서 사회혁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BEPA 31쪽)

회혁신 사례들은 일상 정책과 융합되어서 그런지 잘 소개가 별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임)

- 2) 대륙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기성 국가복지 체도를 가진 탓에 사회혁신이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됨. 하지만 유럽 연합이 사회혁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생각하므로 앞으로는 양상이 달라질 개연성 있음.
- 3) 흥미 있는 것은 영미권 국가들. 이 국가들은 매우 역설적이지만,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후 규제완화로 붕괴된 사회 서비스를 재구축하고자 NGO와 지방정부 영역에서 사회혁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음. 그러다 보니 사회혁신이 사회의 주요과제들을 푸는 방식으로 생각되기 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적 대처방안으로서 공적 영역이 잘 하지 못하는 곳을 시민사회나 선의의 기업들이 메꿔주는 것으로 생각되었음. 이 국가들에서 사회혁신이 자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연이 아님<sup>20)</sup>.

신자유주의에 의한 복지국가의 붕괴 위기, 사회혁신으로 탈출

- 그럼 우리는? 2008년 촛불이후 2010년에 접어들고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를 논하는 시점에서, 기존 정치세력의 변화는 매우 더디고, 전통적인 사회운동의 약화는 현저함. 역으로 사회는 복잡해지고 기존 문제에 더해선진국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들이 우리사회에도 그대로 발생하고 있음. 사회적 위기의 심화에 반비례하고 있는 사회적 주체의 취약성이라는 모순이라는 시점에서 사회혁신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해석해볼 수 있음.
- 우선,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 오면서 한국전쟁 이후 6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사실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 왔음. 그 과정에서 특히 진보적인 사회변화를 열망하는 다수의 민중과 시민들은, 때로는 ‘사회변혁’이라는 전략 틀 안에서 그 변화를 이해하고 실천해왔으며, 또 다른 편에서는 ‘사회

20) 대표적인 사례 소개를 한 책이 바로 Stephen Goldsmith 전 시장이 쓴 『The Power of Social Innovation』임.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서 추진하고 참여해왔음.

- 그 결과, 2010년대 현재 우리 사회의 특징을 압축한다면 ①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②국민들의 경험적, 지적 수준의 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음.
  - ① **사회의 복잡성**: 한국사회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르게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변해왔음. 식민지 후진국에서 OECD국가로 고성장을 지속한 거의 유일한 나라, 한국전쟁 이후 경제 규모가 약 50배 가깝게 커졌다는 압도적인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는데, 국민들의 구성과 요구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의 질적 변화도 엄청난 것임. 결국 '일회적인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기에는 우리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고,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도 마찬가지. 이제 사회운동도 우리가 시도하는 기획이 세계 최첨단일 수밖에 없으며 더 이상 사회변화 방법론과 전략 측면에서 '모방'은 없다고 보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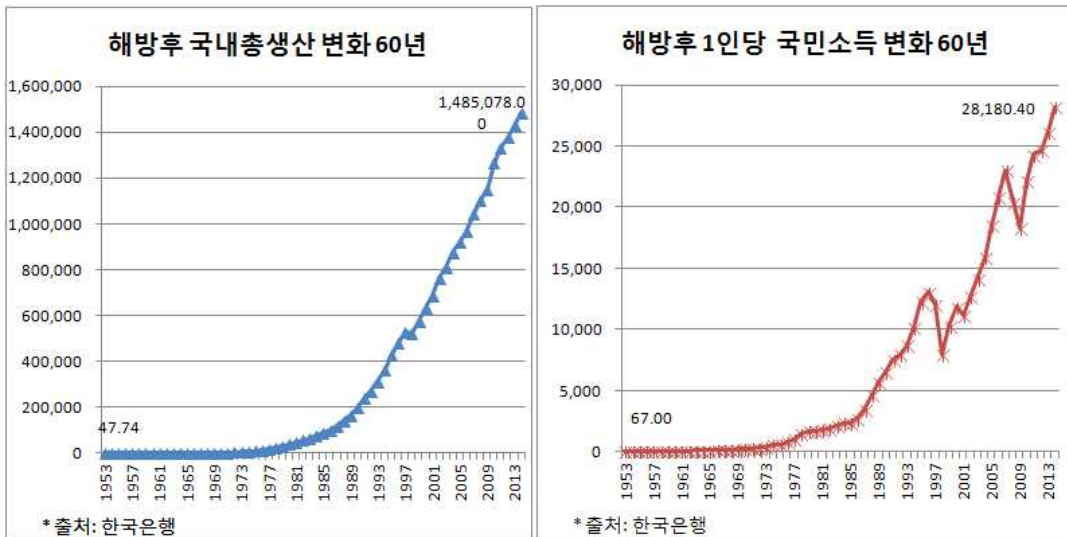


그림2-2: 해방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변화 추이

- ② **엘리트주의 시대 종결**: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들은 문맹을 탈출했음은 물론 대학 진학률 70%이상이라는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과 최고의 인터넷 활용을 자랑하는 똑똑한 국민으로 변해가고 있음. 그 결과, 엘리트

주의적 발상과 방법에 의존했던 20세기 형 변혁이나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개혁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음. 대신 생활 현장에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움직여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감안하지 않는 엘리트주의적 사회변화 전략의 현실성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뜻.

- 한 마디로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국민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기존의 사회변화 방법이자 전략이었던 시장이나 국가에 의존한 문제 해결 방법의 한계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던 것임.
- 사회 환경과 사회 주체의 변화로 인해,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시장에 의한 문제 해결이나 국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해법들에서 모두 한계점이 노정. 시장에만 의존한 해법의 문제점과 취약성은 무엇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침체로 인해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중임.
- 완전한 국가 계획의 문제점 역시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 붕괴 등으로 이미 확인했으며, 그 밖에도 자본주의 국가들이 추진해 온 크고 작은 국가적 개혁 정책들에서 긍정성과 동시에 제약성을 보아왔음. 이제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과 함께, 더 많은 시민들이 생활하고 참여하는 공간, 즉 크고 작은 공동체들과 지역사회 등의 역할이 동시에 필요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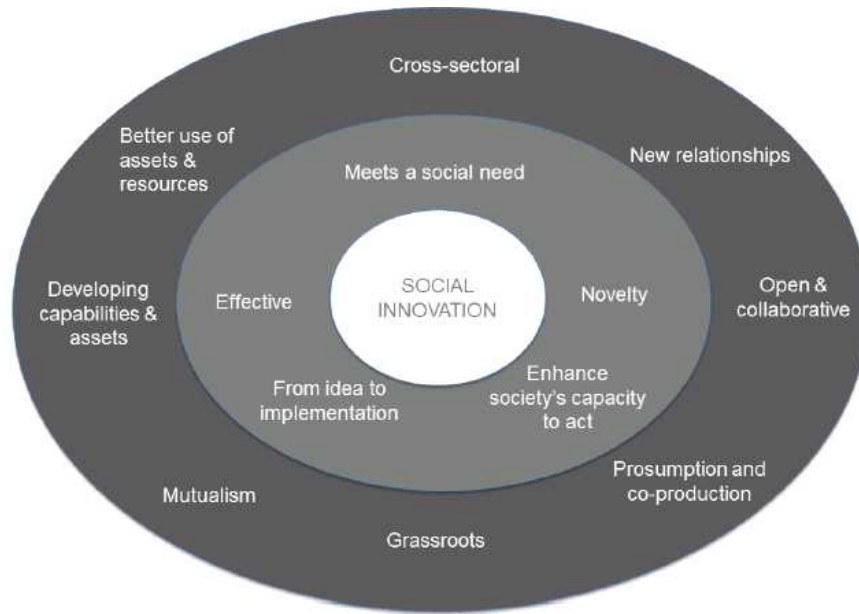
### 3. 사회혁신은 어떻게 다른가?

- 사회혁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현실의 사회를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생활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기존에 익숙한 사회변화 방법론인 ‘사회변혁’이나 ‘사회개혁’과 목표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 다만 방법과 경로, 즉 전략이 다를 뿐임. 혁신의 주체도 넓은 의미에서 다르지 않고 다만 주체가 조직되는 방식, 참여하고 활동하

는 방식이 다를 뿐임. 결국 사회혁신의 핵심은 방법론.

- 즉, 사회혁신이 생활의 작은 부분에 대한 실제적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스템 체인지, 즉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 ‘인식과 행동, 구조를 영원히’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사회변혁, 사회개혁과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음.
- 다시 말해서 사회혁신도 일시적이고 불안한 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안정적이고 확고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대체로 그것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 역학관계의 변화를 포함하게 될 것임.
- 하지만 사회혁신이 사회개혁을 포함한 다른 방식의 사회변화를 ‘대체’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음. 사회혁신은 선거를 통한 정치적 집권에서 집행되는 사회변혁, 사회개혁과 상호 보완하는 기제로서 위치지어질 수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보면 21세기에 사회에서 사회혁신 동력이 없는 사회개혁이나 사회변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주체의 측면에서 보아도 대부분의 사회개혁 지지자들이나 사회변혁세력은 각 풀뿌리 단위에서의 사회혁신 역량이 될 것임.
- 또한 사회혁신은 대개의 경우 인위적으로 계획되기보다는 복잡한 사회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사회변화의 실험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일원적인 목표를 정할 수 없다고 생각됨. (예컨대 사회혁신 10대 목표 등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익숙하게 보아왔던 사회개혁 10대 목표 등과는 다름)





**Key**  
 Core elements of social innovation  
 Common features of social innovation

그림 2-3: :사회혁신을 구성하는 요인들 (출처:TEPSIE 2012)

- 하지만 사회혁신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차별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음. 사회혁신은 태도와 행동, 인식(attitudes, behaviour and perceptions)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즉, 작더라도 대안적 아이디어를 실제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혁신은 기존의 관행을 깨는 아이디어와 접근방법을 필요로 함. 하지만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을 포함. 실제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혁신적 구상을 혁신적 실물로 현실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회혁신의 매력이자 존재이유.
- 이 대목에서 주로 문제제기와 주의환기, 청원을 목표로 했던 기존의 운동(movement)이나 캠페인(campaign)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존재함. (Therefore, we make a distinction between promising ideas (which may or may not become social innovations) and social innovations.)(TEPSIE 2012)
- 사회혁신은 주어진 거시적 환경 아래에서 실제 혁신적인 실험을 해본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풀뿌리 단위에서의 실행전략과 연계되어 있음. (“Social innovation as being intertwined with local development strategies”)(TEPSIE 2012) 또한 사회혁신이 사회운동일 뿐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을 포괄하는 매우 넓은 지평에 걸쳐 있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판단됨.

다른 생각, 변화를 위한 기획, 그리고 당장 있는 곳에서 실행하는 것

-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모든 새로운 변화(Change)를 사회혁신이라고 부를 것인가? 물론 아니다. 사회혁신은 명확한 방향, Vector를 가지고 있음. 단지 양적인 현상으로서 ‘변화(change)’나 ‘새로움(novelty)’를 강조하는 것은 실상 사회적으로는 무의미함. 즉,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사회혁신을 하는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
- 사회혁신을 추구할 때 그것을 단지 방법론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가치전략’을 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함. 즉 어떤 가치를 가지고 혁신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
- 사회혁신은 본성상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not value neutral), 동시에 정치 사회적으로도 중립적일 수 없음. “사회혁신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으며, 늘 정치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social innovation is never neutral but always politically and socially constructed”)(TEPSIE 2012)
- 반면 기술혁신이나 기업혁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는 매우 단일하고 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기술혁신이 추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생산성 향상’으로 모아지고 기업혁신 역시 마찬가지로 ‘더 많은 이윤’으로 수렴될 수 있음.

- 하지만 사회혁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명확히 정의내리기 쉽지 않은데, 그것은 ‘사회’라는 단위가 매우 중층적(마을 공동체에서 국가와 민족, 글로벌 차원까지)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사회는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사회혁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공공선, 정의와 형평성(the public good, justice, equity)’ 등을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음. ‘다만 어떤 것이든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서로 ’함께 사는‘ 것과 맥락이 닿아야 할 것.
-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무차별한 혁신 찬양론은 위험할 수 있음. 지난 30여년간 신자유주의는 구조개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시장을 비롯한 세계의 곳곳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왔던 경험이 있다. 오죽하면 미국의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은행권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 중 쓸 만한 것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하나다.”라고 말했을까?
- 유럽위원회 보고서 역시, 모든 혁신이 좋은 것은 아니며 특히 지난 수십년 동안의 금융부문의 혁신은 경제적으로 재앙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기술하고 있음. 핵심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혁신이라는 대목은 아주 잘 지적한 것. (“not all innovation is desirable. Many of the innov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s have proved at best to have little social value and at worst to b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strous. Policy-makers needs to favour innovations that can be demonstrated to have a high social value...” BEPA(2010)
- 또한 사회혁신의 전도사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사회 혁신가 제프 멀건 (Jeff Mulgan) 조차도 2013년 한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혁신을 찾는 것은 망상일 수 있다면서, 어느 한쪽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혁신은 다른 쪽에 파괴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sup>21)</sup>

---

21) Keynote speech Geoff Mulgan(2013), "Setting a future research agenda for social innovation", Social Frontiers: The next edge of Social Innovation research 2013/11 , <https://www.youtube.com/watch?v=dER0EFOVQ5o>

- 좋은 혁신과 나쁜 혁신이 있다면 좋은 혁신 중에는 더 좋은 혁신도 있을 수 있을 것임. 같은 얘기지만 좀 각도를 돌리면 ‘더 절실한 사회혁신’이 있을 수 있음. 그리고 더 성공가능성과 확장성이 높은 사회혁신도 있을 수 있음. 이런 걸 굳이 한가하게 따지려고 하는 이유는, 인적, 물적, 시간, 공간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 그리고 그에 따라 혁신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하기 때문.

## 좋은 혁신과 나쁜 혁신 사례

지난 20년 동안 가장 두드러진 혁신 사례 두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금융혁신’과 ‘IT혁신’을 꼽지 않았을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문자 그대로 ‘대량 살상무기’로 확인된 파생금융상품은 사실 이제까지 금융공학이 이뤄낸 혁신의 꽃이자 금융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준 발명품으로 칭송받았다. 1973년 마이런 솔즈(Myron Scholes)와 피셔 블랙(Fischer Black)이 완전금융시장에 대한 이론적 가정 아래 옵션가격 모형(이른바 블랙 솔즈 모형)을 개발한 이래 파생상품은 최고 난이도의 공학적 뒷받침을 받는 최고의 혁신 상품으로 대접 받았던 것이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금융혁신이 주도하고 정보통신 혁신이 밀어주면서 굴러온 20여 년 동안의 혁신의 수레바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대침체를 일으킨 원흉이 된 것이 아닌가? 그 결과 이제 이들을 인류를 힘들게 했던 혁신, 나쁜 혁신으로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모든 혁신이 좋은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1970년대 이래 금융부문에서 앞에 예시들 든 그런 혁신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블랙 솔즈 옵션 가격모형이 개발되던 1973년, 방글라데시의 경제학 교수였던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는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작은 마을의 여성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라민 은행 프로젝트(Grameen Bank Project)’ 구상을 시작하게 된다. 유누스가 착수한 혁신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담보도 없고 신용등급도 낮을 수 밖에 없어서 일반적인 은행시스템으로는 대출이 안 되는, 하지만 어쩌면 가장 돈이 절박하게 필요한 서민들에게 담보와 신용보증 없이 150달러 미만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장기대출 해주는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원리금 상환이 안 되어 망했을까? 정 반대다. 원리금 상환률은 ‘98%’였다고 한다. “현재 그라민 은행에서 대출받은 870만 명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방글라데시 내에서 운영 중인 그라민 은행 지점은 2천개 이상이며 1만 8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그라민 은행의 성공적인 ‘무담보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이제 세계 60여 개국에서 실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혁신은 끝없는 침단을 추구한다면서 불평등과 위험을 확대하는 그런 혁신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낮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혁신이 아닐까? 이처럼 좋은 혁신과 나쁜 혁신은 구분할 수 있다.

\* 이승은, 『되살린 미래』

#### 4. 사회혁신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 우선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사회혁신이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주·객관적인 차원에서 가능함.
- 1) 사회혁신 담당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혁신은 어느 정도의 물질적 자원의 분포, 지적 자원의 분포가 되었을 때 가능함. **플뿌리라고 하는 제한된 단위에서도 최소한의 지적, 물질적, 인적 자원을 보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독립적으로 사회변화의 최소한의 실험이 가능한 상황이 현재 도달했기 때문임.**
- 2) 객관적인 사회상황에 비추어 보면, 신자유주의 30년 동안의 민영화와 시장화 폐해와 함께, 특히 2008년 이후 글로벌 대침체의 여파로 인한 경제 사회적 위기와 기존 해법의 무력함이 사회혁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기 때문임.
- 유럽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의 위기국면에서 기존의 통념들이 깨져나가자 빈곤, 복지, 성장 등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로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사회혁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 밝히고 있음.(Social innovation can offer a way forward in coping with the societal challenges and the crisis that EU is facing .... by mobilizing people's creativity to develop solutions and make better use of scarce resources) (BEPA 2010)

기회 - 성장과 평등,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

-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우리사회의 최고의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압축할 수 있을까? 대략 현재 시점에서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삼각형은 "성장(growth) - 평등(equality)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라고 요약될 것. 그런데 과거에는 세 가지 축이 서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서로 갈등했음. 흔히들 보수는 성장에 집착하고(불평등과 환경을 무시하며), 진보는 평등에 무게를 두고(성장 해법과 환경을 부담스러워 하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생태, 환경입장에서 성장주의를 비판하는 식임.

- 하지만 다행스럽게 요즘은 서로가 서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연결대목들을 활발하게 찾으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음. 즉, 1) 현재 장기침체 기저에는 극심한 불평등과 그로인한 소비위축이 놓여 있으며, 따라서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음. (-> 문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성장 촉진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수단이 뭔가 하는 점이 좀 더 명료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 최저임금 정책, 부자 증세 등 몇 가지만 산발적으로 나열되고 있을 뿐인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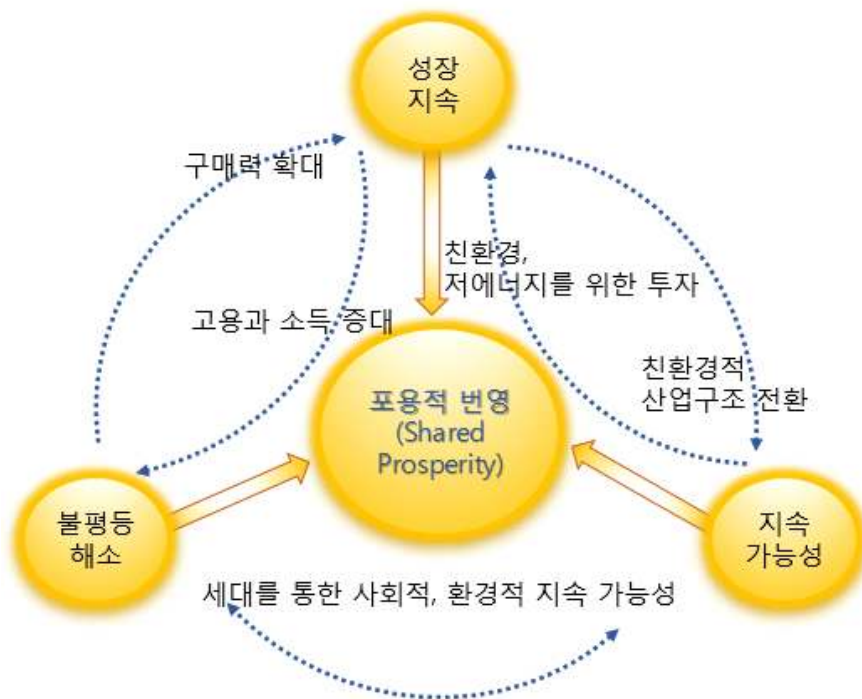


그림 2-4: 우리가 원하는 미래 번영의 삼각형

- 2) 현재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소비 위축뿐 아니라, 투자부진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환경, 생태를 위한 공공투자가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는 논지 역시 늘어나고 있음.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형, 고 탄소 발생형, 공해 유발형 기존 산업시스템에 대해, 자원 효율형, 저탄소 에너지 형의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을 정도임. (이런 사례로 그는 large-scale deployment of solar and wind power; broader adoption of electric transport, both public (buses and trains) and private (cars); energy-efficient buildings; and power grids to carry renewable energy across large distances)<sup>22)</sup>
- 2014년 9월의 유엔 기후변화 회의 주제들도 유사한 기초를 보이고 있음. (The fact that two of today's most pervasive challenges - climate change and unemployment (especially among the young and the unskilled) - can be addressed simultaneously, with mutually reinforcing policies) 문제는 여기도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계획들이 정작 명확하게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음.
- 요약하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삼각형 "성장(growth) - 평등(equality)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동시적 해결이 필요해진 시대가 왔고, 다행스럽게 선순환적 해결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 지점으로 거시적 사회혁신의 과제가 모일 것.

### 성장과 평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과거의 정치학

지금까지는 성장과 평등, 지속 가능성 가운데 어떤 지점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정치적 정당들의 성향이 구분되었다. 성장을 강조하면 보수적 정당으로 분류되고 평등은 좌파 정당들을 특징 지웠으며 지속가능성은 녹색정당들의 어젠다였다. 이는 독일 사회민주당 계열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설명을 보면 그림과 같이 매우 명확히 알 수 있다.

22) 아울러 케인지언 성장정책과 생태경제학을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려고 노력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팀잭슨(2009), 『성장없는 번영』, 착한 책가게



그러나 향후에는 이런 과거의 도식과 경계를 넘을 필요가 있다.



\* 시몬트 바우외 지음(2009), 『경제와 사회민주주의』, 한울출판사, 112쪽

- 문제는 인류사회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의존했던 두 가지 해법인 ‘시장에 의한 해법’과 ‘국가에 의한 해법’이 현재 시점에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임.
- 다시 말해서 관행적 방법이 역사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대개의 경우 기존 해법은 크게 국가에 의한 해법과 시장에 의한 해법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것임. 그리고 현재 이 두 가지 해법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1) 국가와 시장이 이미 해결하는데 모두 실패했거나, 2)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 국가가 계속 외면하고 있거나, 3) 수익이 나지 않아 자본투자의 관심이 없어 시장이 외면하거나, 4)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거나, 5) 시장이 장악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다수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거나, 6) 국가와 시장이 각각 국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만 더 큰 문제(환경)를 위협에 빠트리는 등 영역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확대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이것이 2010년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이 강력하게 필요해진 이유.

- 최근 경제위기 이후 유럽등지에서는 이른바 국가재정문제로 인한 ‘재정의 제약성’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혁신을 고려하고 있기도 함.<sup>23)</sup>(물론 정말 재정 제약이 있는지, 아니면 긴축이라는 이데올로기 틀에 갇혀서 재정제약이 있다고 착각하는지 따져볼 사안도 있음.)
- 우리의 경우에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평등과 실업 문제가 겹쳐서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인구고령화, 생태 환경문제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까지 중첩된 상황에서 기존의 시장과 국가의 단순해법으로 풀기가 어려워진 사정을 반영하여 사회혁신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됨.(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가 실업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간주되거나 사회복지의 한 대안으로 간주되는 것이 어찌면 당연.)
- 따라서 사회혁신은 국가의 역할과 한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시장의 장점과 위험성을 동시에 살피면서, 이 양자가 포괄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비국가적/ 비시장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쪽에 많은 무게가 두어지게 됨.

시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나 시장과 국가 사이의 넓은 기회를 보자.

- 그런데 국가와 시장, 중간쯤에 서는 것이 공정한 것일까? 객관적일 것일까? 아닐 것.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지난 30년 동안 대체로 우리나라도, 국가의 역할이 천대받고, 시장이 과도하게 찬양된 시절을 막 보냈기 때문.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어느 정도 회복시킬 필요가 있고, 시장의 과도한 전횡은 확실히 많이 줄여놓을 필요가 있음. 이런 고려 없이 그냥 국가와 시장이 다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닐 것이고 현실에서도 도움이 안 됨.
- 예를 들어 공기업으로 해야 할 것, 국립으로 해야 할 사회서비스 등은 확

23) BEPA(2010)

실히 그렇게 다시 되돌려야 함. 이들을 대충 두리몽실하게 사회적 영역이 하겠다고 나서면 무리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음. 물론 더 사회가 복잡해지고, 더 국민이 똑똑해짐에 따라 국가의 단순한 중앙계획에 의거한 획일적, 관료적 해법 보다는 '좀 더 분권화된'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한 시장적 해법과 시장적 사고는 많이 다운사이징 할 필요가 있음. **사실 진정한 다운사이징은 국가에서가 아니라 '시장의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것.** 그런 점을 고려하여, 시장이 어울리는 우리 생활의 영역을 공유하고, 규제가 필요한 곳에 규제를 통해 시장을 더 잘 작동시키는 방식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본원적으로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의 현실적 형태를 인정하고, 그 사이에 방대한 시민사회영역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하는 아이디어와 실험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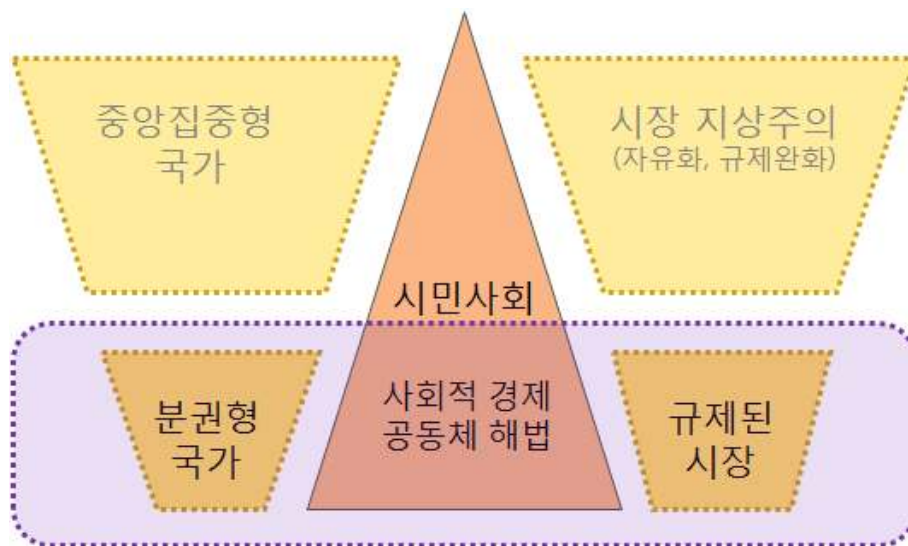


그림 2-5: 시장과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재구성

-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 사상은 시장이라는 축을, 사회주의 전통은 국가라는 축을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은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표를 좇는 장으로 그려지며 계약은 시장의 주된 조정수단이다. 반면, 국가는 법의 영역 전체에 걸쳐 정치행위를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구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런 구도 아래에서는 시민사회 조직이 자리잡을 여지가 없음.<sup>24)</sup>

- 최근 기존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관계국가’ 역시, 관료적 이해관계나 시장의 논리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지양되고, 대신 시민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같은 시민주도의 공공 서비스 공급 및 수요 체계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의 형성과 기획 보장이 요구됨.

## 5. 어디에서 사회혁신을 시작할 것인가?

‘절실한 시민의 필요(needs)’에서 사회혁신은 시작한다.

- 모든 훌륭한 사회혁신 뒤에는 절실한 시민의 필요(needs)에 대한 발견과 공감함이 있었음. 이것은 마치 시장에서의 모든 탁월한 상품들 뒤에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품에 반영한 기업의 노력이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고, 정치에서의 모든 훌륭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가장 밀착해서 들었던 결과로 나왔다는 사실과도 동일한 맥락임.
- 사회혁신이라는 행동이 시작되어야 할 곳 역시 “무엇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하는 것임. 여기서 특히, 단기적 이익이 없어(어쩌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해서) 절대 사적 기업은 손댈 가능성이 없고, 공적 기관은 정치적 이유로 회피하지만,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는 절실한 생활과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임.

24) 스테파노 자마니(2014),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북돋움

- 따라서 혁신해야 할 대상/문제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작점이며, 문제의 선정 안에 거의 '문제를 푸는 주체'와 '향후 문제 해결로 수혜를 볼 대상'이 정해지게 되는 것임.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조 인식과, 통찰이 절대 긴요한 것. 즉 사회혁신은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은 현재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우리사회의 난제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임.

사회혁신은 '창조'하는 과정이기 보다는 '발견'하는 과정이다.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회혁신이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기획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 마치 실리콘벨리의 벤처창업자들이 정책적으로 기획하여 시작되지 않는 것처럼. 많은 경우 초기에는 시민들의 삶의 곳곳에서 초보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시도되는 혁신적인 잠재 가치들을 '발견'하고 여기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함.
- 사실 절실한 시민의 필요(needs)가 있는 곳에서 이미 시민들은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록 매우 제한된 공간에서 매우 부족한 자원만을 갖고) 행동을 시작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그러한 시도 안에서 문제를 풀 솔루션은 배양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현재 시점에서 절대 다수 시민들의 공통된 필요와 연결되는 거대한 문제를 두개만 꼽으라면 바로 불평등과 생태 문제가 될 수 있음. 물론 이외에도 교육, 주거, 고령화와 인구학적 문제, 복지, 세계화의 충격 등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는 매우 복잡함. 더욱이 이들은 상호 얽혀있음.
- 요약하면 사회혁신을 우리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Social needs)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함. 일부에서는 이를 '결핍기반 접근법(deficit based approach)'이라고도 부름.<sup>25)</sup>

- 그러나 동시에 사회혁신은 단지 ‘구상’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시켜 내야 하므로, 필요를 현실에서 충족시키기 위해 당장 보유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과 자원을 따져야 함. 즉, 가지고 있는 것을 따져보고 이 범위에서 당장 시작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접근법을 ‘**자산기반 접근법 (asset based approach)**’이라고 부름.
- 물론 현실에서는 양자가 공히 필요할 것. 주민과 시민, 동료들의 필요로부터 혁신의 대상을 발견하고 동시에 자신과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초하여 당장의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임.(당연히 이 과정에서 공공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 시장에서 조달 가능한 자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고, 지자체나 정부는 이런 자원의 동원을 용이하게 하도록 인프라 지원을 해야 할 것임.)

결핍기반 접근(deficit based approach)과 자산기반 접근(asset based approach)

- 아울러 대개 사회혁신은 1)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2) 기성 권위에 대한 현실적 심리적 억압이 최대한 약하며, 3) 건설적인 비판이 활발한 곳에서, 4) 그리고 기성의 관행적 영역들을 뛰어넘는 활동 속에서 보다 잘 일어날 것임. 기존 사회구조의 중심보다는 ‘변방’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혁신의 기운이 사회의 외곽에서 먼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됨.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님.
- 또한 혁신적 활동으로 이룬 결과는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관대하게 수용해보려는 태도를 가짐과 동시에, 거꾸로 사방에서 치밀한 건설적 비판을 수용하고 견뎌내야 하기도 함.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존’하는데 성공한 사회혁신이 바로 확산과정을 거쳐서 거시적 혁신으로 도약하게 될 것임.

25) TEPSIE(2012)



## 6. 사회혁신을 향한 전략과 방법

사회혁신을 위한 ‘공식’은 없다. ‘패턴’을 찾아라.

- 혁신을 경제학 개념에 도입한 조지프 슈페터는 혁신에 대해서, “조직상의 발전은 부단히 옛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부단히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하는 산업상의 돌연변이-생물학적 용어를 사용해도 좋다면-의 동일한 과정을 예시한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과정(creative destruction)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사실”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김.<sup>26)</sup>
- 그런데 그에 의하면 창조적 파괴, 돌연변이, 혁신은 기상천외한 발명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 즉 생산 요소와 자원들의 기존 결합방식에서부터 나옴. 다만 기존 결합방식을 그냥 수용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결합방식을 부정하고 파괴하여 새로운 결합방식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혁신이 이뤄진다는 것이 슈페터의 혁신 방법론. 비록 보수적인 경제학자이지만 혁신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혁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기상천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임.

### 슈페터가 분류한 혁신의 유형

슈페터는 ‘새로운 결합의 수행’을 통한 혁신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깔끔하게 정식화하고 있다.(슈페터 1911) 100년 전에 정식화했다고 보기에는 지금도 상당히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다.

1. 새로운 재화, 즉 소비자들이 아직 모르는 재화 또는 새로운 품질의 재화 생산
2. 새로운 생산 방법, 즉 해당 산업부문에서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생산 방법의 도입. 이것은 결코 과학적으로 새로운 발견에 기초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상업적인 취급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3. 새로운 판로의 개척, 즉 해당국의 해당 산업부문이 종래 참가하고 있지 않은 시장의 개척, 이 시장이 그 전에 이미 존재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6) 슈페터(1942),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4. 원료 혹은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의 획득. 이 경우에도 이 공급원이 기존의 것인가 - 단순히 못 보고 지나친 것인가. 획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던 것인가를 불문하고- 혹은 최초로 만들어 내야만 하는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새로운 조직의 실현. 즉 독점적 지위(예를 들면 트러스트)의 형성 혹은 독점의 타파.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결합방식(혁신)은 기존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이 관행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리고 기존의 기업가가 아니라 새로운 기업가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도로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단순히 보행횟수를 늘리는 것과 다른 것처럼, 새로운 결합의 수행은 단순히 관행적인 과정의 점진적 반복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편 마차를 아무리 연속적으로 배차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결코 철도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철도를 건설한 것은 일반적으로 역마차 소유자가 아닌 것이다.”

\* 조지프 슈페터(1934), 『경제 발전의 이론』, 지식을 만드는 지식

- 사회혁신은 또한 대단히 모험적인(risk-taking) 활동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로 됨. 이 대목에서 무엇보다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질적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공동작업과 이해관계조정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게 됨.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회혁신의 공식은 없음. 다만 공통되는 유형과 패턴을 찾는 것이 필요함.

#### 사회혁신을 위한 투쟁의 무기, '설득과 공감'

- 통상 대부분의 혁신은 기존의 관행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존의 것에 의지해왔던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충돌을 동반하게 됨. 그 중에는 이른바 '기득권 세력'도 있고, 우리안의 '고정 관념'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될 개연성도 일부 있음. 따라서 사회혁신 역시 혁신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반드시 돌파해야 함.
-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기가 막힌 혁신은 현실에 없기 때문임. 예를 들어 지금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혁신을 말하지만, 그 불평등이라는 기존 관행에 없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것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임.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다른 쪽에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임. 사회혁신은 그래서 현실 속에서 고민되고 실천되어야 함.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항이 없다는 것은 기존 관행을 깨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혁신도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음.

- 다만 혁신은 실제 검증 가능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설득기제를 가지게 되며, 따라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설득과 공감’에 의한 갈등의 해결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사회혁신의 장점이 될 것임.
- 일찍이 1929년 『설득의 에세이』라는 책 제목으로 짧은 글들을 출판한 바가 있는 케인스는, 책 서문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파하기 위한 ‘설득의 정신’에서 글을 썼다고 말했는데 특히, 케인스를 20세기 경제학에서 “가장 위대한 설득가”라고 논평한 스킨델스키는 케인스의 설득 비결을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음.
  - 1) 언제나 상식에 연결시켜 설득한다. → 고용은 총수요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단지 “아무도 차를 사지 않는다면 차를 만드는 의미가 없다”는 자동차 노동자의 직관을 일반화하는 식으로 이론을 폈음. 때문에 케인스에게는 일상 언어의 능란한 사용을 필요로 했음.
  - 2) 절박함을 가지고 설득한다. →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리저리 변명하며 구질서의 붕괴를 맞고 있을 때, 그는 언제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상을 들고 대중에게 다가갔음.
  - 3) 도덕적 확신을 가지고 설득한다. → 세상은 정부의 의도적 행위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케인스는 가지고 있었음.
  - 4) 권위를 가지고 설득한다. → 진리를 말하기 위해 핵심적인 정부 직위를 포기했던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설득은 호소력이 있었

음.27) 늘 평범한 사람의 상식과 접목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함,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설득에 무게를 더하는 권위가 설득의 요건이라고 가르쳐줌.

‘모방’도 사회혁신의 중요한 요소다.

- 비록 기업 혁신의 사례이지만, 슈페터는 혁신의 발생과 확산과정을 이렇게 설명함. “우선은 혁신의 단독 출현이 나타나고 다음에는 기존 기업 중에서 두 세 개의 기업이,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서로 다른 속도와 서로 다른 완전함을 가지고 혁신을 붙잡는다.” 더 나아가 “단순히 ‘선구자’가 출현한 생산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다른 생산부문에 의해 모방”되어 확산됨으로써 호황국면이 온다. 이것이 슈페터가 설명하는 혁신의 출현과 전파, 확산의 경로이고 자본주의 경기변동의 동력.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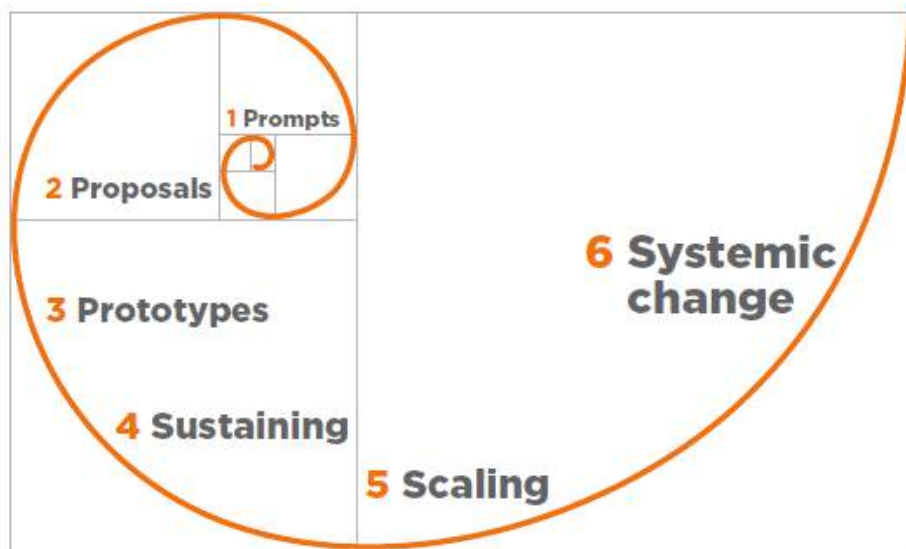


그림 2-7 :사회혁신의 여섯 단계(출처: NESTA 2010)

27) 로버트 스킨델스키(2003), 『존 메이너드 케인스』, 후마니타스

28) 조지프 슈페터(1934), 『경제 발전의 이론』, 지식을 만드는 지식

- 여기서 예시하는 것처럼, 혁신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 모두들 초기에 아기자기 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자못 신기해서 거기만 쳐다볼 수 있는데, 점점 더 혁신의 발생과 성공 확장과 일반화의 과정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창조 못지않게 모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사례가 바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일수 있음. 참여 예산제는 사회혁신 중에서 드물게 정치 부분의 혁신이라는 점, 최고의 검증된 혁신사례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모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 특히나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실험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더 중요. 유럽에서도 참여 예산제는 매우 비중 있는 사회혁신의 사례로서 여전히 실험과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 독일 사례를 길게 설명하는 보고서도 발견.<sup>29)</sup> 이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모방을 사회혁신활동의 일환으로 끌어 들여야 하고 사회혁신을 위한 모방과 확산 전략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

공공과 기업, 시민사회는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자 주체이며 협력자다.

- 사회혁신은 공공영역, 사적 영역, 시민사회영역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음. 이들 각각은 사회혁신의 대상 영역이면서 동시에 주체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니셔티브는 속성상 시민사회영역에서 가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사회혁신에서 시민 이니셔티브는 매우 필수적일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
- 사회혁신은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을 교차하면서도 그 사이에 ‘매우 넓은 중간지대 - 시민사회 영역’으로 확장해가는 과정일 것이기 때문임. (물론 시민사회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는 아직 숙제임)

29) <http://www.epractice.eu/en/cases/colognepb>

- 과거에 공공은 사회변혁이라는 관점에서는 변화시켜야 할 대상에 불과했음. 개혁에서 공공은 주로 변화를 추진할 주체로 인식되었음.(물론 정권교체로 개혁세력이 집권을 한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사회혁신에서는 공공을 혁신의 지원자/협력자(Partner)로 보는 것이 주류라고 생각됨. 다만,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개념이 공공이 민간에게 공적 영역을 ‘위탁’하는 포괄적인 행위라는 뜻으로 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함.<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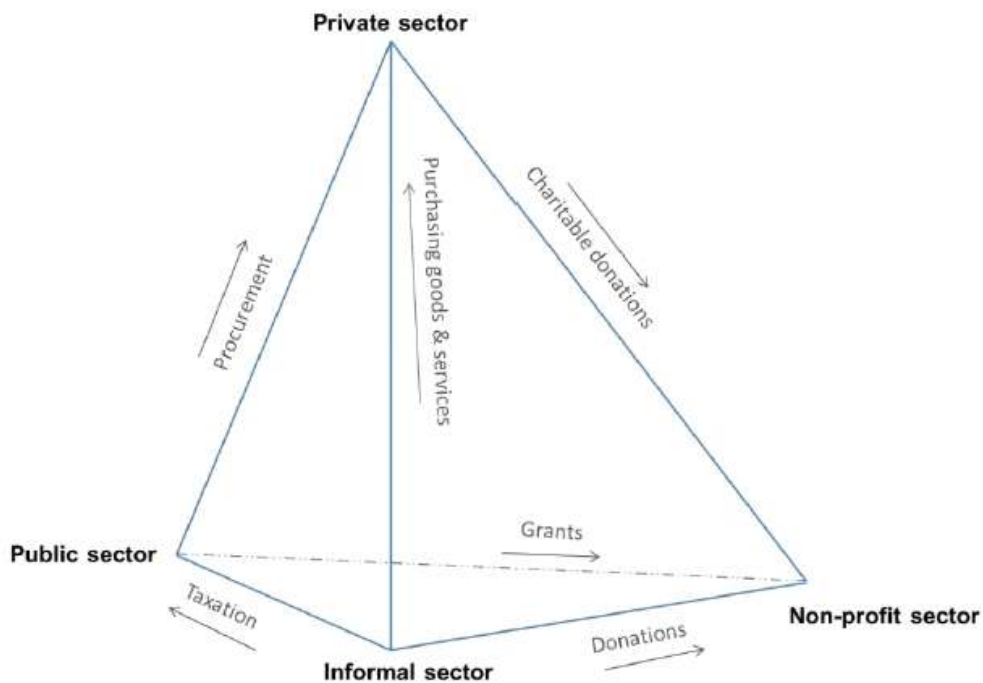


그림 2-8 :사회혁신의 영역과 주체(출처: TEPSIE 2012)

-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스펀터가 기업혁신을 말하면서 가정했던 혁신적 기업가(entrepreneur)에 비견될 사회 혁신가 개념이 성립할 수 있을까? 또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혁신 리더십이 성립할 수 있을까? 이미 이런 개념들을 상당히 기정사실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음.

30) Marie J. Bouchard(2013), 『Innovation and the Social Economy』

- 사회혁신은 현실의 자원제약과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참여가 필수적임. 따라서 기본은 ‘당사자 주의’에 입각하여 필요가 절실한 당사자가 움직이게 하면서 동시에 공적, 사적 주체와 자원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함. 따라서 선불리 개인으로서의 혁신가나 리더를 호명하기 이전에 시민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체들 사이의 협력 틀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사회혁신이 기존 공식을 깨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기존 협력 틀과는 다른 틀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혁신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전통적인 영역을 넘나드는 파트너십으로 주체형성의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사회혁신은 운동(Movement)과 비즈니스(Business)에 걸쳐있다.

- 사회혁신은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대안적 사회 질서를 제시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사회 운동적 관점’에 기반 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사회혁신은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해법을 실물로 만들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런 각도에서 보면 사업이자 비즈니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비즈니스는 이미 물질적 제품 생산을 넘어서 각종 서비스 제공,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혀왔음. 따라서 사회혁신이 비즈니스 주체와 비즈니스 방법을 포괄하는 것은 당연함.
- 사회운동은 부단히 시민들로 하여금 기존의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을 태도를 갖도록 촉진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을 자극할 수 있고, 비즈니스는 시민들의 사고방식 변화가 단지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대안적 실험에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됨. 이런 방식으로 사회혁신은 사회 운동적 경험과 자원, 그리고 동시에 비즈니스(특히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비즈니스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CSR기업 등)적 경험과 자원을

동시에 포괄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게 됨.

-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운동과 비즈니스는 지금까지 역사도 다르고 원리나 주체도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러다 보니 사회혁신이 어떤 때에는 사회 운동적 경향을 지나치게 보이면서 캠페인성 문제제기에 몰입하기도 하고, 반대로 비즈니스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 사회변화와는 큰 관계가 없는 수익사업에 몰입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될 경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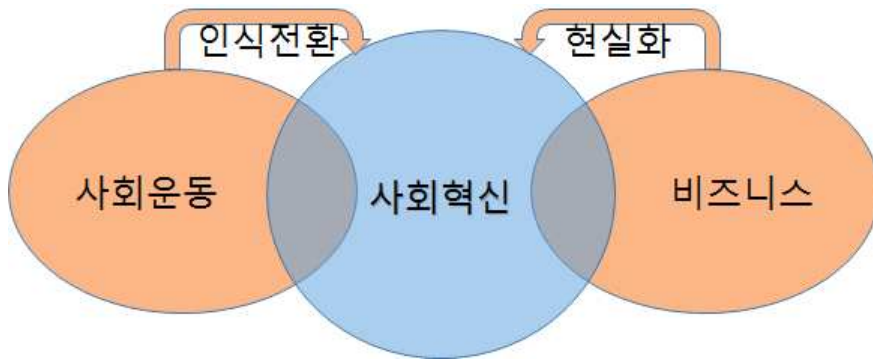


그림 2-9 : 사회운동과 비즈니스를 포괄하는 사회혁신

- 전통적 사회운동, 계급기반의 조합운동, 캠페인성 시민운동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존 시스템에 저항하는 모든 사회적 행동은 운동이라고 부른다면, 사회혁신은 분명히 거대한 부분의 사회혁신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사회혁신의 측면에서 볼 때, 대안적 실험을 포함하는 사회혁신이 기존의 운동영역/ 캠페인 영역뿐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별되는 운동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 특별히 덧붙여 둔다면, 사회혁신을 말할 때 대단히 많은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거명.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비즈니스가 자의든 타의든 사회적 공익으로 관심의 영역을 넓혀왔기 때문

에 활동주체와 활동방식 측면에서 비즈니스 영역이 사회혁신을 선점했던 사정을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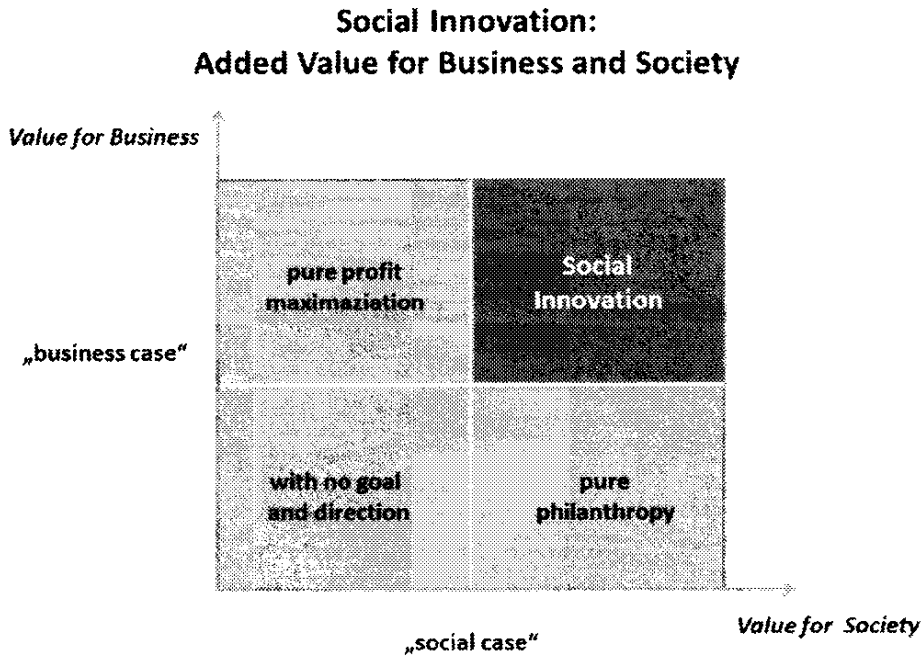


그림 2-10: 사회혁신과 비즈니스의 위상  
(출처: 『Social Innovation: Solutions for a Sustainable Future』)

- 다만,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존의 기업과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는 사회혁신 주체들의 목표가 다르고,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기업과 협동의 원리를 추구하는 사회혁신 주체들의 활동원리가 다르다는 점을 어떻게 현실에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그림이 아직 없음. 한 가지 짚어둘 것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혁신은 그들의 사회적 기여나 자선 등이 아닐 것. 기업 조직은 가장 큰 사회적 조직이다. 따라서 그들의 조직을 보다 사회 친화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근원적 과제일 수 있음.

사회혁신의 모든 성과는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 사회혁신도 비즈니스나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검





일상이 작은 혁신을 거대한 시스템 변화의 지렛대로 만들자.

- 통상 사회혁신의 출발과 근거는 미시적 차원(개별 기업, 개별 공동체 차원, 개별 사안 차원)에 있음.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미시적 사회혁신에 그칠 수 없는 Big Change / System Change가 필요한 시점. 따라서 미시적 혁신이 거시적 개혁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함.
- 2008년 이전의 사회혁신전략이나 사례들은 시스템 변화를 자극하는 수준의 혁신 보다는 기존 시스템 테두리 안에서의 소극적 사회혁신전략이었다고 평가됨. 그러나 지금은, 특히 우리나라는 **시스템 교체를 공략해갈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혁신 전략’을 필요로 함.** 적극적, 능동적, 거시적, 입체적 전략이 필요함.
- Marie J. Bouchard(2013), 『Innovation and the Social Economy』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예로 들면서, 개별적인 사회적 경제 분야의 기업 활동이 어떻게 전체 경제의 거시적인 사회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음.
- 첫째, "사회적 경제 그 자체만으로는 심대한 사회변화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 분배와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을 모색하는 '**실협실**' 역할을 할 수는 있다.
- 둘째, "사회적 경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전체 사회.경제에 **자신의 규모 이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다."
- 셋째,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 결국 ‘실험실’로서, 그리고 제도적 ‘충격’ 측면에서, 그리고 이질적 부분에 대한 완충/조정자의 역할로서 거시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 이 부분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앞으로 도전해야 할 과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임. 어쨌든 시스템 체인지를 위해서는 시스템 파워(System power)가 필요할 것이 분명하다면, 미시적 사회혁신의 경험을 전략적으로 축적하여 거시적 변화를 전망해야 할 것임.

### 거시적 사회혁신을 향한 도전, ‘서울 혁신 파크’

우리나라에서 거시적인 사회혁신을 목표로 한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구) 질병관리 본부 3만 5천 평의 부지에서 활동하게 되는 ‘서울 혁신파크’이다. 2015년부터 혁신센터라는 중간조직을 설립하면서 본격화되고 2017년까지 파크 내부의 낡은 건물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약 1200억 이상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고 수백 개의 혁신활동 조직들이 혁신파크에 입주하게 될 예정이다.

사회혁신의 아이디어 -> 디자인 -> 실행을 중, 횡으로 연결하여 시너지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사회혁신 실험실, 거대한 사회적 자본의 인큐베이터로서 서울혁신파크 활성화 전략은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시 사회혁신 정책의 꽃이 될 예정이다. 낙관적으로 볼 때, “서울시민이 주목하고, 국민이 주목하고, 세계가 주목할 사회적 실험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2 :2015년 5월 29일, 혁신파크 첫 입주설명회

## 7. 다시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발상과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

- 점점 더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을 널리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학계나 정책 집단, 또는 활동가 그룹 사이에서 합의된 개념은 없음.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사회혁신의 정의들은 아래의 사례가 있음.
- “사회혁신은, (기존 해법보다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새롭거나 개선된 역량과 관계를 만들어내는 한편, 자산과 자원의 더 나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줄 새로운 해법(상품, 서비스, 모델, 시장, 프로세스 등)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혁신은 사회에 이익이 되면서 사회의 실행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Social innovations are new solutions(products, services, models, markets, processes etc.) that simultaneously meet a social need(more effectively than existing solutions) and lead to new or improved capabilities and relationships and better use of assets and resources. In other words, social innovations are both good for society and enhance society’s capacity to act)(TEPSIE 2012)
- 또는 사회혁신이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발상(상품, 서비스, 모델)”으로써,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역량(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으로써 정의되기도 함. (Social innovation are innovations that are social in both their ends and their means. Specifically, we define social innovations as new ideas(products, services and models) that simultaneously meet social needs and create new social relationships or collaborations. They are innovations that are not only good for society but also enhance society’s capacity to act)(NESTA 2010)

- 조금 더 나가면,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해법과 새로운 유형의 조직화, 작동방식을 개발하는 것"(Developing innovative solutions and new forms of organizations and interactions to tackle social issues - BEPA(2010)) 정도가 참조가 될 수 있음.
- 2013년에 출판된 Thomas Osburg, Rene Schmidpeter Editors(2013), 『Social Innovation: Solutions for a Sustainable Future』에 실려 있는 수십 편의 논문에는 앞서리마다 사회혁신 정의를 제각각 해놓고 있는데, 대체로 위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음.
- 우리는 사회적 필요 - 사회혁신 - 사회적 자본과 연계해서 사회혁신을 재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 때에 사회혁신은, ① '절실한 시민적/ 사회적 필요가 있는'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② 새로운(신뢰와 협동) 가치와 접근법에 따라 ③ '기존 방식과 다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④ '당사자들의 참여와 행동'임.<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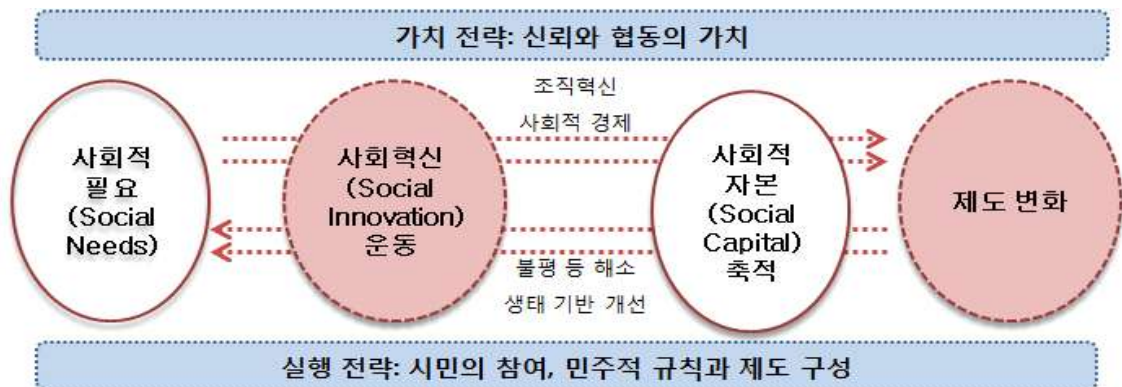


그림 2-13: 사회적 필요,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의 연관 관계

31) 김병권(2013), "대안적 사회변화 전략으로서 사회혁신"